

부천시오정동육군제1121부대이전촉구건의안

의안번호	제189호
의결년월일	99. 7. 8 (제71회)

발의년월일 : 1999. 7. 5

발 의 자 : 이제영 의원 외 28인

1. 주 문

오정동 소재 육군 제1121부대 부지는 부천시의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시설부지로 당해 토지 이용에 대한 시민의 기대감 충족을 위해 군부대 이전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 당해 부지는 부천시 도시기본계획상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용도로 지정된 바
- 시민의 권익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의 뜻을 존중하여 군부대 이전을 용이토록 하기 위함
- 육군 제1121부대 조기 이전으로 매연과 소음공해로부터 해방되어 자연친화적 도시공간을 확보하여 밝고 명랑한 옛고향의 정취를 되찾아 인근 지역주민들의 집단적 민원해결을 도모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육군 제1121부대가 도심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어 부천지역의 균형적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 군부대의 차량 이동이나 병력 이동시 긴박감 조성으로 주변 주민에게 상당한 위화감을 주고 있으며
- 군부대 주변에 아파트, 연립주택과 학교(덕산초등, 덕산중학, 대명초등 등) 등이 위치하고 있어 매연과 소음공해로 인한 집단민원과 학생들의 정서와 배움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군부대 이전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함.

육군제1121부대이전촉구건의문

육군 제1121부대는 부천시 북부지역의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부천시의 균형적인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군부대의 대형차량이나 병력이동시 인근 지역주민의 실생활에 많은 위화감과 긴박감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군부대 이전이 불가피한 지역입니다.

또한 군부대 주변에 아파트와 연립주택, 그리고 덕산중학교와 덕산초등학교, 대명초등학교, 2001년 개교 예정인 오정고등학교가 바로 접하고 있어 학생들의 교육 및 정서적인 측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군부대의 차량 이동과 운전연습으로 발생하는 매연과 소음공해가 심하여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어 놓지 못하고 사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에 해당지역은 1992년 10월 24일 부천시 기본도시계획 수립시에 당시 국방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부

천시에서 공과대학부지로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동안 부천시와 부천시민, 그리고 시·도의원과 국회의원들이 시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쾌적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육군 제1121부대 이전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국민정부를 맞이한 현시점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적인 차원에서 군부대 이전이 절실하게 요구되며 아울러 군부대는 당연히 이전이 되어야 합니다.

부천시민의 권익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자라나는 어린학생들의 배움의 터를 보장받기 위해서, 군부대차량으로 인한 위협과 소음, 매연공해로부터 부천시민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군부대 이전이 용이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정부 차원의 대책과 국방부 및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행정배려가 필요합니다.

부천시와 부천시민의 요구인 군부대 이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며 건의합니다.

부천시의회 의원일동